



SAINT APOLLONIA

언제 보아도 치과의사의 수호신으로서 참정했다고 생각되는 작품이다. 이 그림은 15세기 중엽 성 아포로니아의 순교 후 장면으로 그녀의 종교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니를 빼고 턱을 부수고 화형까지 처한 AD 249년의 알렉산드리아 이교도의 잔악성이 보이는것 같다.

이렇게도 젊고 청순한 성 아포로리아가 우리의 수호신이라니 중세의 치과의사들은 상당히 낭만적이였다.

성 아포로니아의 수호성인 기념일은 2월달 9일이다.

세창치과기공소

752-5970, 778-8687

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-18 (금정빌딩 302)

대표 권혁문